

“서해안에도 철도를”...김준성 영광군수, 국회방문 건의

유일하게 철도 인프라 없어...전남·북·충청권 연결
 “균형발전 위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유일하게 철도인프라가 없는 전남·북 서해안 구간에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됐다.

서해안 철도가 건설되면 ‘충청-전라’ 간 서해안 경제협력 축과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가 구축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김준성 군수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과 손영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서해안 철도 건설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북과 충청권을 연결해 줄 서해안 철도는 총연장 141.4km에 복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목포~무안~함평~영광~고창~부안~새만금~군산’까지 선로를 신설하는데 2조3056억원

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서해안 철도는 지난해 6월 3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광군은 서해안 철도 경유 지자체인 부안, 고창, 함평, 무안군에 실무회의를 제안해 오는 16일 5개 군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 회의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거쳐 ‘서해안 철도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 경유지 해당 자치단체장들과 협력을 강화해 ‘서해안 철도 건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왼쪽 아래 첫 번째)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방문해 ‘서해안 철도 건설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설안이 반드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연속 시제(時祭) 건너뛰기에 문중들 ‘울상’



한식(寒食)을 앞두고 문중들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제(時祭)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다 보니 전국 각지 문중원들에게 참석을 공지하거나 독려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속만 태우고 있다.

10일 광주·전남 일부 문중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해외유입을 제외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평균 396.1명에 달하고, 무증상 확진과 산발적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으면서 다음달 초 청명과 한식을 전후로 예

문중 대표는 “15대조부터 시제를 모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이게 위험하고 방역수칙도 위반하는 것이어서 안된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많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B문중도 전남 보성 선산에서 할아버지부

시제 시즌 앞두고 취소 잇따라...5인 미만 약식진행도

인원 4~8인 완화돼도 사실상 불가... SNS 대체 고민도

시제 줄면서 관련 요식업체에도 불뚱 “10분의 1 토막”

정됐던 문중 시제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문중의 경우 해마다 청명인 4월 첫째주 주말에 전남 장성에서 시제를 치러왔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심 끝에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문중 대표 몇 명만 청명에 선산을 찾아 약식으로 예를 표하기로 했다.

터 어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50~60명이 모인 가운데 시제를 치러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모임은 생각하고 문중 대표, 총무, 감사만 단촐하게 모이기로 했다. “약식 진행한 뒤 휴대전화 영상에 담아 SNS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문중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통해

방역 강도를 완화하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도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시제 특성상 최소 10명 이상 모이는 곳이 많아 단계 조정에도 행사 추진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C문중 관계자는 “이맘 때면 전체 문중원들에게 연락해 참석 여부를 묻곤 했는데, 2년 연속 패싱하게 돼 연락도 못한 채 월말께 간단한 문자만 발송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문중원들 가운데 고령자가 많고, 거처질환자들도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거주자들이 적잖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곳곳에서 시제는 물론 소규모 묘제(墓祭)도 속속 취소되면서 시제음식을 제공하는 요식업체에도 코로나19 불뚱이 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제 제물 비용은 적게는 40만~50만원, 규모있는 곳은 수 백만원에 달해 불가를 특수했는데 (코로나19로) 시제와 묘제가 크게 줄면서 주문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기찬영암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 주관 | 영암군항토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 문의전화 | 061-470-2347